

“독점 벗어나 시장성 공기업 대비”

이명호 예탁원 신입사장 취임
정책당국과 공감대 형성 노력
혁신기술대응 IT역량강화 주문
지속 제도정비, 시스템 개선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시장성 기업으로의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신입 사장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잠시만 방심하면 수많은 경쟁자에게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증권제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특허제 기반의 독점기업”에서 벗어나 “허가제 기반의 시장성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변을 둘러싼 경영환경에 대해 냉정히 분석하고, 정책당국과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사장은 “최근 금융산업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과 접목돼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시장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장은 “잔디밭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전산센터 재구조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최고의

안정성과 성능을 갖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시장의 핵심 인프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사장은 “오는 5월 아시아펀드펀드 스포츠(ARFP) 시행에 따른 국경 간 펀드 설정·환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펀드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벤처넷으로 불리는 혁신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 청산 결재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전자투표 시스템 재구축 등을 사업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자본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면서 “작은 부분까지 소통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별도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 임기는 2023년 1월 30일까지다.

/손영미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초·중·고교 개학을 앞둔 목동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겨울 방학기간 억원 단위로 상승했다. 목동트라펠리스 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학군인기’ 목동 전세가 겨울방학 중 역대 상승

학교배정 시기 거래 활발
하이퍼리온 1차 1.5억 올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둔 목동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겨울 방학에만 억원 단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전셋값은 성수기인 12월 0.64%까지 상승했다. 학교 배정이 마무리된 지난 달 말까지 전세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현재 매매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하이퍼리온 1차 아파트 115.5㎡가 매물이 나와 있다”며 “이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말 6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주 7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올랐다”고 했다.

목동 트라펠리스는 전용 138.6㎡ 전세가가 14억원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6개월 동안 3억~4억원이 올랐다. 길 건너에 있는 성원상떼빌 아파트는 58㎡가 전세로 나왔다. 전세가는 5억3000만원이다. 목동 현대 1차 아파트는 59㎡가 6억원이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7단지 전용 59㎡ 전세가는 5억8000만원, 4단지 전용 46㎡ 전세가는 3억5000만원선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3개월 동안 전셋값이 5000만원이나 올랐다.

목동지역 전세시장의 경우 신시가지

아파트보다 일반아파트가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목동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전세 수요자들은 주변 일반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다는 게 인근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목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차 공간 문제는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힘들다”며 “재건축까지는 최대 1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6단지는 지난해 말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한편 개학날짜가 다가오면서 학군 수요는 점차 줄고 있다. 방학기간 동안 전세거래가 대부분 이뤄져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일대 아파트 전·월세는 지난해 12월 254건, 1월 152건이 거래됐다.

중개업자는 “학교배정이 끝난 이후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며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매수문의도 감소한 상태”라고 했다.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 인기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목동은 학원가가 인접해 있고 유해시설이 없어 학부모에게 인기있는 학군 중 하나로 꼽힌다. /정연우 기자 yw964@

삼성자산운용, 업계 최초 ‘美 리츠 펀드’ 출시

‘누버거버먼 미국 리츠 펀드’
평균 35~45개 종목 편입

삼성자산운용은 4일 미국 리츠(REITs)에 투자하는 ‘삼성 누버거버먼 미국 리츠 펀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업계에서 처음 출시한 미국 리츠 펀드로 씨티은행에서 판매하며 누버거버먼자산운용이 위탁운용한다.

리츠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해 발생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미국 리츠시장은 전 세계 리츠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182개 상품이 상장돼 있다. 규모는 약 1400조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 누버거버먼 미국 리츠 펀드는 부동산 시장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평균 35~45개 종목을 편입한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180여개 리츠 주식의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3.59%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의 수익률(연 13.24%)보다 우수하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EAFE(Europe, Australasia and Far East)의 연 5.39%보다 높다. 또 주식, 채권 등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유용한 편이다.

임대수익에서 발생하는 인컴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캐피탈 수익으로 나뉘는 리츠의 수익은 순이익 대부분이 배당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수록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용식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일본 리츠시장은 오피스와 복합시설의 투자 비중이 큰 반면 미국 시장은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택, 오피스, 리테일, 물류창고 등 모든 섹터가 골고루 분산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소액도 자산관리” KB증권, 프라임센터 오픈

디지털 플랫폼 활용 투자정보 제공

KB증권은 지난 3일 소액투자자 및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Prime) 센터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Prime센터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였던 소액투자자 및 온라인 고객들에게도 언제든지 금융전문가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Prime센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고객들에게 적시에 꼭 필요한 투자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Prime 프라이빗뱅크(PB)들이 직접 나서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KB증권은 Prime센터를 통해 소액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프라임(Prime)센터에서 KB증권 박정림 사장(왼쪽 세번째), 김영길 WM부부장(오른쪽 두번째), 이흥구 WM총괄본부장(왼쪽 두번째), 김유진 Prime센터장(오른쪽 첫번째) 등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의 구독료로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rime Club 서비스’를 4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흥구 WM총괄본부장은 “온라인 고객들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

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Prime센터를 오픈하게 됐다”면서 “Prime센터의 역할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 KB증권만의 특화된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미 기자

‘e편한세상 독산더타워’ 상업시설 준공

대림산업

입주민 대상 안정적 수익 기대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독산더타워’(상업시설)를 준공 완료했다.

4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총 81실 지하 1층~2층으로 구성됐다. 홈플러스(금천점), 롯데시네마(독산), 빅마켓(금천점) 등이 하나로 연결된 서울 금천일대 중심상가다.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는 총 859가구 규모다. 이에 따라 입주민을 고정고객으로 확보해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교통은 도보거리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신안산선 신독산역(2023년 예정)이 있다. 대형마트, 영화관이 몰려있는 독산지구단위계획구역



‘e편한세상 독산더타워’ 상업시설 조감도

과 독산우시장을 포함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상권 연계로 금천의 새로운 최대상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보권 내에 자영업자, 현대식산업센터 근무자와 금천구청, 우체국 등 공공업무기관 근무자 약 5만 명 이상의 직장인 인구를 배후수요로 확보했다. /정연우 기자